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져야 한다

국제교류 인력양성 시급

최근 불교계에서 국제교류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JTS, 이웃을 돕는 사람들, 우리는 선우, 참여불교재가대 등을 주축으로 각종 학술·문화교류와 협력에서부터 개발도상국 불교계에 대한 지원과 복지증진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의 국제교류 증가는 한국불교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한편, 절대적인 빈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해 동체대비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 매우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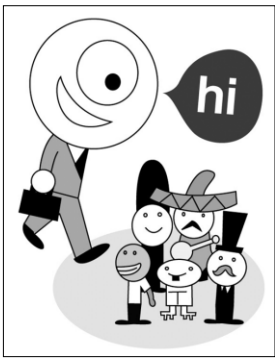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은 물론 양적인 증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인적 자원이 준비돼 있지 않다. 게다가 교류대상 국가의 문화상황을 이해할만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국제교류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된 단체들은 축적된 경험이 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 필자는 최근 불교계의 한 단체로부터 지원 대상국에 체류하면서 실무자로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청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할 경험이 있고 해외구호에 열의와 신념을 갖고 있는 한 후배에게 의향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이후배는 마음을 정한 곳이 있다고 했다. 그 후 몇몇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적임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려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단체는 현지에 파견할 실무인력들이 필요하지만 몇 년씩 해외에 나가서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불교단체들 가운데에는 정부 산하기관인 국제협력단을 통해서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이 불교적인 정서와 마인드를 갖춘 인력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교류추진 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의 선행이 필요하다. 다른 곳보다 먼저 교류사업을 추진해온 선발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후발단체들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단체들의 이후 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오류와 한계점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행효과를 겪고 있다.



언어·실무 극복이 최우선 과제 단체인 정보교류·협력해야

화시킬 수 있다.

또 국제적 마인드와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무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봉사자뱅크 구축, 실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해외단체 파견연수, 실무자교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계획 속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역단체협의체 또는 종단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정희(서울 중구 정동동)

“기회오면 떠나겠다” 41%

종립학교 교사들 시설·복지등에 관심 주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 700명 설문

조계종 종립학교에 근무중인 교직원들의 상당수는 공립학교로 이직이 가능하더라도 언제든지 전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가 지난 9월 말 달간 조계종 산하 22개 종립학교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에서 교직원들은 만약 공립학교로 갈 기회가 주어지면 전근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25%)와 그렇지 않다(59%)로 엇갈렸다. 한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일부 무응답자·기타 응답자를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전근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41%로 높아져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들 교직원들은 열악한 학교시설(36%)과 급여, 전근, 복지(32%)에 대한 불만족 의견을 높게 표출했다. 이는 종립학교 교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립학교

교에 비해 재단의 재정적 기여(시설투자)가 부족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사찰을 갖고 실행활동을 하는 그들의 교직원들은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 대상자 가운데 현재 자신의 교직활동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70%를 차지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교직에 대한 자부심(51%), 불자로서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만족감(22%)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선발과정에서 실행활동의 열의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직원들은 종립학교 재단의 낮은 재정지원도와 그에 따른 미미한 투자가 학교발전의 가장 큰 장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의 종립학교에 대한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재정적

기여라고 답한 응답자가 51%나 차지했다.

또한 종립학교 관리자의 자질 향상(16%), 종립학교 확대(10%)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대신에 건학이념을 강요(4%)하거나 재단의 지나친 간섭(9%) 등에 대한 불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타종교 재단 학교들의 전횡을 불교계 종립학교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관위 위원장 원택 스님은 “종립학교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종단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조계종 22개 종립학교에 재직중인 남자 480명 여자 218명 등 7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교직 경력은 만 5년 차부터 25년차까지 다양했다. 연령별로는 주로 30~40대(70%) 교직원들의 답변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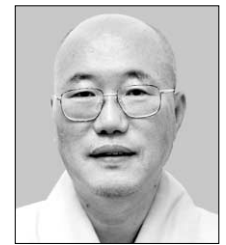
조용수 기자

의장에 법등 스님

수석 부의장 장주, 차석 원택 스님



장주 스님



원택 스님

조계종 165회 정기총회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5회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법등 스님을 2년 임기의 후반기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법등 스님은 무기명비밀 투표 결과 총 79표 중 51표를 얻어 27표를 획득한 법조 스님을 14표 차로 앞섰다.

법등 스님은 1961년 녹원 스님은 은사로 수계, 총무원 총무국장, 조계사 주지, 9·10·11·12대 중앙총회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3면)

중앙총회는 또 수석부의장에 장주 스님, 차석부의장에 원택 스님을 선출했다. 사무처장 법진 스님 임명에도 동의했다.

하반기 각 상임분과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그러나 상임분과위원회 구성과 ‘해충행위자(대중단 소송제기자)에 대한 징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또 총회장 앞에서 통영환 경운동연할 관계자가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중단에 도움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65회 정기중앙총회는 4일부터 8일까지 중앙총무기관 총정감사를 한 뒤 9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여기에서는 별면 제도를 삭제하고, 중앙총회의 원 3분의 2이상 동의 없이 중앙총회의원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총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중앙신도회 최우수단체

조계종 포교원 ‘우수 포교사업’ 선정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종단 포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제안 우수단체 선정작업’에서 ‘신도교육과정의 재편과 신도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 등 12개의 사업을 제안한 중앙신도회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11월 3

일 밝혔다. 우수단체로는 ‘불교상담전문 인력 육성’ 등 7개를 제안한 불교상담개발원과 ‘산사에서 즐기는 시네마 천국’ 등 7개를 제안한 파라미다청소년협회가 각각 선정됐다.

강지연 기자

무구 스님 증정추대 본원종, 5일 법회

본원종 제4대 종정 무구 스님(사진) 추대법회가 11월 5일 서울 연화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원로의장 대종 스님, 총무원장 대화 스님 등 본원종 종진 간부 및 사찰 대표자 5백여 명이 참석했다. 무구 스님에게는 종정을 상징하는 주자자와 불자(佛子)가 전해졌다.

192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무구 스님은 46년 김천 김용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평창 상원사, 울진 불영사 등의 선원에서 20년간을 성만했다. 89년 태허 스님, 석천 스님 등과 본원종 창종을 주도했으며 원로의장, 부총정, 종정대행 등을 역임했다.

박병영 기자

“본사주지 선관위원장 안돼” 교단자정센터 법개정제안

조계종의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는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이 선출된 것과 관련, 참여불교계 가운데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는 11월 1일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자정센터는 논평을 통해 “현행

종헌종법에는 교구분사 주지의 중앙선거위원 겸직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입법미비 사항일 뿐, 사회적 상식과 통념에만 비추어 보아도 응당 금지해야 할 사항”이라며 겸직금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또한 “관련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위해 전문가, 불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유철주 기자

부산 선암사문제 책임 규명 촉구

재가연대 등 11개 단체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11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부산 선암사 사태 해결을 위한 불교단체 연석회의’는 11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일은 사찰 재산을 사사로이 유용한 공금횡령 사건”이라고 규정 “선암사 주지 정아 스님과 법

주 종원 스님은 지금까지도 대중 앞에 공개 참회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의 자구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 균형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법부의 가처분 판결은 종단내부의 적법한 자정절차를 인정치 않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구 실천 규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명당탐지기 관룡자!!

사람마다 학설이 다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풍수지리...
 이젠 당신 손으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궁금한 모든 것!
 월간역학 필진·월간역학교육원 교수들과
 직접 상담하세요. 060)800-2424

이름	통화번호	이름	통화번호	이름	통화번호
이재운주필	02	박일봉원장	09	김옥주원장	18
박인산원장	03	김애영원장	11	최정미원장	19
전종효원장	04	마정만원장	12	전주범원장	21
홍진보원장	05	이정호원장	13	김영순원장	22
신갑용원장	06	경대우원장	15	김순양원장	23
백명길원장	07	조성애원장	16		
김태현원장	08	김정석원장	17		

한 마디로 격이 다릅니다!

월간역학에는 어중이 떠중이 억울인이나 헛소리하는 무당이 없습니다. 억울인들을 교육하는 교수·필진 등 학계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국 시외전화 요금 없이 3분간 무료통화. 이후 30초당 900원. 15분에 1사람 상담하면 2만1천6백 원, 30분에 3사람 상담하면 4만 8천 6백 원이므로 억울원에 가시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며 정확합니다. 불면신고 (02) 2264-0258

관룡자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지리서인 <금강경(鏡囊經)>에 의하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의 황실에서 궁궐터를 잡거나 황제의 묘터를 집을 때, 기존의 터를 감정할 때 밀히 사용되던 옥척(玉尺)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7월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하고 있는 한국의 진산실업(주)에서 이 옥척을 현대 과학적 형태로 개발 한 것이 관룡자입니다. 조계사, 해인사, 수덕사, 상원사, 월정사 등 오랫동안 번성해오던 사찰과 서울 명동성당,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천도교당 등 번성하는 종교단체의 건물, 세종대왕릉, 남연교 묘,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여러 문종의 묘, 일본 동종의 황거(皇居)와 오사카 성, 북경의 자금성을 비롯한 황제들의릉, 대만의 중정기념당(장개석 동상) 등 세계적인 유적과 사찰물에서는 틀림없이 관룡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아직 찾아지지 못한 명당지라도 국내에는 많습니다.

저희는 관룡자가 불타거나 팔릴 거라고 생각했습디다만 그렇지 않았습디다. 관룡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을 제외하고는 친구나 친지에게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 기구를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심성이 착하지 않아서 아니라, 정말 훌륭한 것은 자신만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터(명당)에 대한 욕심에는 형제도 없다'는 속설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사찰, 교회 등 건물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터를 감정할 때, 산소나 남굴당, 공영묘지의 터를 잡거나 기존의 자리를 감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명당에서 발산되는 특별한 지기(地氣)에 반응하여 지기가 흐르는 명당혈(穴)의 방향을 가리키므로 터를 잡는 것은 물론, 건물이나 산소의 좌향(方位) 까지 잡을 수 있으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교수, 사업가, 전문 경영인, 법률가, 풍수전문가 등 500여 명이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며, 풍수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정면이 TV에 여러 차례 방영되기도 하였습디다.

관룡자는 88만 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8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관룡자 휴대용 주머니+월간역학 1년분+수택탐지기 1세트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예금주: 진산실업(주)로 80만 원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명 불타주머니 관룡자와 수택탐지봉은 자세한 사용설명서와 함께 즉시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 신용카드 소지하신 분 12개월 분할가능. 기업에서 구입시 세금 계산서 발행.
- 월간역학 1년분 구독료는 105,600 원이지만 지금 신청하시면 9만 원으로 할인+수택탐지기 1세트 무료 증정
- 월간역학은 지난호에도 모두 정가 판매합니다만, 지금 신청하시면 과월호 12 권을 선착순 100 분에 한하여 7만 5천 원에 드립니다. ('99년1월호~2003년 12월호까지)
- 수제품 황금 18k 헤더 관룡자 주머니·육효용 수제품 서주과 산목시트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서울 중구 광희동 27가 303-15호 청옥빌라 101호 **www.kbs.cc**